

2023년도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2023. 3. 8.)

용인특례시의회

2023년도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6시 00분

장소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공무국외출장 심사

심의안건

1. 공무국외출장 심사

(16시02분 개석)

○간사 전난영 안녕하세요?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전난영입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재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찬 부위원장님과 김운봉 위원님은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였고요. 남홍숙 위원님은 이번 심사대상이시라서 제척 대상입니다.

금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앞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5일에 실시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출장 보고는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진규 의원님께서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류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도시재개발 글로벌 선진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무국의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의출장은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운봉, 김상수, 김영식, 김윤선, 박은선, 안치용 의원 등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말레이시아의 켄팅하이랜드, 수방자야시, 푸트라자야시,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 마리나 베이 샌즈 지구 등 용인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 글로벌 선진모델들을 주요 방문지로 선정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기술 집약적인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과 싱가포르의 중장기 도시계획에 입각한 지역 랜드마크 활성화 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 성장 및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의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난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신 남홍숙 위원님은 금번 공무국의출장 심사의 당사자인 관계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못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명 2023년도 제2차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난영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8명 중 제척 대상 1명, 불참 2명으로 총 5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선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무국의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심사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난영 금번 공무국의출장은 지난 2월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을 앞두고 튀르키예 지진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규칙 제2조 용인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로써 남홍숙 의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의원입니다.

출장의 목적은 인접국가인 관광선진국 일본 방문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및 일본 우

수 관광도시의 우수시책 발굴과 벤치마킹을 통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장 내용으로는 일본 고베 시청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금각사, 오사카성 등 대표 관광지를 관할하는 관공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화유적 보존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 관광발전 관련 의원 연구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간사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받았을 때 의원이 1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오사카 방문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가 조금 저는 그랬고요.

관광과 그다음에 문화보존·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약 문화보전을 용인에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 사례가 있으면 어떻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사카나 고베나 이런 데가 비교적 굉장히 흔히 방문하는 곳이라서 그곳의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제가 보내주시는 것 보고 의문이 들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명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시려고 하시는지 의견을 주세요.

○간사 전난영 일단 일본에 방문하시는 의원은 총을 아홉 분이시고요. 거기에 수행하는 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베시하고 오사카가 많은 방문을 요하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 관광 연구단체 목적으로 가는 분들이 모여서 움직이시는 거라서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가서서 또 놓쳤던…… 지금 가시는 그분들 말고 다른 방문객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목적이 관광활성화에 목적을 아예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배울 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명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안재만 위원 관광활성화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오겠다 이런 건 없습니까?

○간사 전난영 일단 저희가 공식 방문하는 방문지는 고베에 있는 하버랜드 거기를 일단 가는 거고요. 고베시청에 방문해서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실무자가 되겠지요.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토와 다른 관광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딱 뭐라고 답변하긴 그렇긴 한데 아마 이분들이 가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단체의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관광으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뭔가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명 지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용인시의 어디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을?

○간사 전난영 최종한테 같이 수행하는 직원 우중운 정책지원관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우중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 우중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국외공무출장도 그렇고 황재욱 위원장님이 연구장이 돼서 진행하실 의원연구단체도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이 너무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막연하고 포괄적이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용인하면 사람들이 무색무취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를 관광 포인트로 삼을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의원연구단체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일본은 어떠한 해서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성이나 신사이바시나 도톤보리나 이런 관광지를 직접 체험해 보고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시면 이번에 고베시청 관광과 직원과 만나서 고베시청에서는 관광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묻고 답하는 간담회 자리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연구단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은 관광활성화고 그 관광활성화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지부터 시작할 거라서 지금은 정확하게 이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겁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저의 의견을 조금 보충한다면 일단 경기도 용인 내에서 어디 어디 장소가 미비하고 활성화에 필요할 것 같다고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가야지 그냥 일본의 오사카를 벤치마킹한다 그러면 순서가 바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용인 내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그거 어떻게 보면 사전 답사라든지 거기에 대해 뭐가 필요한지 문제점, 이런 것을 먼저 연구단체에서 의논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목표와 장소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게 구체적인

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우중운 예.

○위원장 김선명 그러면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 가고 오는 날이야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일정이 그렇지만 2일 차도 보니까 잘 돼 있고요. 관광과 방문 및, 시에서 또 운영하는 리조트라니까 운영방안이나 어떤…… 요새는 또 개인한테 불하를 많이 해 주잖아요, 운영을 임대를 많이 주는데. 직접 운영한다니까 이런 것도 좀…… 4일 차도 좋고.

3일 차 같은 경우에는 청수사의 관리인한테 접촉해서 미팅 예정이 있는데 좀 청수사를 운영하는 어떤 상급인 직책을 가진 사람하고 미팅도 가지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남들이 봤을 때 관광 쪽 물론 배우고 이런 거를 느끼는 거보다도 한 사람한테 설명도 좀 듣고 이런 게 약간 오사카로 이동하는 일정 중에 일정이 바쁘더라도 그런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현지에서 가이드하고 미팅을 가지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명 김태현 위원님 의견 있으시지요?

○김태현 위원 이거 나가는 거는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궁금한 게 말레이시아 다녀오신 거 시정반영사례 제안내용이 이거예요? 기술집약적인 일체형 가로등하고, 중장기 도시계획에 입각한 지역 랜드마크 활성화?

○간사 전난영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선명 20페이지.

○김태현 위원 20페이지요. 다녀오셔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신 내용이 이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간사 전난영 예.

○김태현 위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간사 전난영 제안내용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현 위원 말레이시아 다녀왔는데 일체형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필요해서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간사 전난영 이거는 저희가 출장 결과보고는 아까 다 정리가 된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이게 다녀오셔서 제안,

○김유성 위원 설명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태양광 가로등 거기가 우리나라 하기 한참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높은 지역에 있는 거 뭐지요? 켄조 뭐라고 그러냐? 캠티워 거기도 자국인들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왕래를 했었는데 밑에 이렇게 쇼펄센터도 하고 거리도 만들고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몇 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CNS 개념이라고 그러나요. 교통체계하고 연계된 그런 망이 되어있더라고요, LED

망, 단순히 볼 켜고 이런 망들이 아니라.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정보통신과 연계된 뭐 그 얘기 같은데요. 여기는 간단히 설명을 해 가지고.

담당자분이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위원 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간사 전난영 이 건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온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를 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설명을 다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입각한 지역 랜드마크 활성화, 이렇게 하면 사례제안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뭘 제안했다는 게 없어요. 결과물이니까 결과도 중요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부연하면 지금 3월이잖아요. 이미 날짜가 바짝이니가 거기 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1년 동안 국외출장을 할 건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매번 개별적으로 하면 어떤 게 더 나갈 만하고 어떤 게 덜 나갈 만한지 그런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 이번에 대해서 좀 더 지난해는 안 그랬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심의할 때도 어쨌든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써 있는 거에 의하면 거의 관광을 가겠다는 얘기밖에, 구체적인 게 없어서. 더구나 오사카, 고베는 워낙 그런 도시라서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건이라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관광을 목적으로 간다는 건 정말 막연하잖아요. 그냥 관광, 여행가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금 보니까 관리인을 만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 여기 시작할 때 꼼꼼하게 따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진짜 어디를 갈 때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나가는 목적이 있지 안 그렇고 다른 게 더 먼저 부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예산을 들어서 갔다 왔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시청과 얼마큼 긴밀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게 시청에 정말로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냥 제안만 하고 항상 끝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요.

아마도 이번에 되게 많이 활발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더 확실한 것, 구체적인 것에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결과가 없는데 갖다만 놓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심의할 때도 ‘이걸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여쭙본 거예요.

○간사 전난영 예.

○위원장 김선명 그래서 다음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할 때 직접 설명해 주실 분이 같이 나와서 질의를 좀 하시면 대답을 할 수 있게, 이걸 언제 또 다른 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이번 연수계획예요. 5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이란 주요일정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용인의 어떤 지역이 미비해서 이것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게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일본에 가서 막연히 유명 관광지를 보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전부터 항상 보면 그 내용이 항상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야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전난영 예,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 공무국외연수계획안에서 보완해야 될 사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의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점목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어져 있어야 된다.

○위원장 김선명 장소가 두세 군데 정도, 여기 왜 가는지에 대한 위치나 장소가 있잖아요. 두세 군데 정도는 여기에 벤치마킹하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한 장 정도는.

○간사 전난영 이 계획서를 지금 보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출장결과보고를 저희가 다음에 하게 되어있으니 그때 그 부분을 조금 담아보도록……

○위원장 김선명 물론 지금 4월 27일이잖아요.

○간사 전난영 3월 27일입니다.

○위원장 김선명 3월 27일이지요. 저희가 지금 3월초잖아요. 그래도 어디를 생각하고 계산 건지에 대한 내용은 미리 저희한테 메일로 해주시는 게 여기 목적에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실 때 필요성과 목적이 있으셔야 목표가 정확할 것 같아서 가시기 전에…… 지금 사실 많이 남았어요, 20일 정도.

그거 정리하는 거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거를 그냥 막연히 카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이정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사인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정선 위원 이번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 보여 가지고.

○위원장 김선명 김유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성 위원** 저는 여기 항상 목적, 동기, 업무수행, 안에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누구 미팅,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일본이라는 데가 더구나 관광지다 보니 까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갔다 오지도 않고 여기 목적에 보면 업무수행 내용이 다 있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김선명** 갔다 오고 나서의 얘기가 아니라 용인의 어디를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까. 그렇지요?

목적, 필요성.

○**김태현 위원** 목표가 불분명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가지마세요’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할 거는.

○**김유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보통 저도 기안을 많이 하는데요. 기안을 할 때 현재 우리에게 맞춰서 다른 기안 목적을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데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런 데도 가고 그러면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 업무에 관련돼서도 찾을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김태현 위원** 그렇지요. 다시 찾을 수도 있지요.

○**김유성 위원** 그러니까 굳이 어디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두들겨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절이……

○**김태현 위원**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을 가리키며) 3년 되셨고 2년 되셨고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본 가는 거 전에도 한번 보시지 않으셨어요, 벤치마킹?

○**위원장 김선명** 있었어요.

○**김태현 위원** 그때도 이렇게,

○**김유성 위원** 위원들마다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당선되신 분도 있고.

○**김태현 위원** 그런데 얻어지는 소득이 없었어요. 그게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어필을 하신 거니까.

○**김유성 위원** 전체 위원회는 그렇긴 한데, 목적 이런 건 분명한데 너무 동기에 대해서 동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에……

○**위원장 김선명** 저희 의견의 주목적은 용인시의 혈세잖아요. 주민, 시민들의 혈세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용인시 발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게 좋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게 개선이 안 됐고 사실 보고서도 지금 처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유성 위원** 아니요. 보고서는 계속 하는 거고.

○**위원장 김선명**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뭔가 개선되고 조금 업그레이드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고. 어쨌든 의견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유성 위원** 예.

○**위원장 김선명** 그러면 조금 보충해서 올려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이렇게 하려는구나’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김태현 위원** 명확한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선 위원**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읽었을 때 금각사하고 오사카성하고 그래서 용인의 문화유적지에 반영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용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절이든, 성은 없잖아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 문화유적지가 뭐가 있어서 그걸 보존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이게 합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의견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만 하면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위원장 김선명** 더군다나 연구단체잖아요. 연구단체는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사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연구단체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가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명** 이것을 보충을 해주실 필요성은 있으시지요.

언제까지 자료 보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7일이니까 그래도 20일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지원관 우종운** 일주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일주일 안에.

○**김유성 위원** 절차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간사 전난영**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은 미비한 계획서이긴 하지만 일단 의결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완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만 들어서 위원님들 메일로 넣어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김선명** 일주일 안에.

○**김유성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결하고 절차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선명** 그런 게 앞으로 계속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위원** 가결은 하고……

○**김유성 위원** 하고요 메일로 받아보고,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건도 따질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서도 들어오니깐.

○**위원장 김선명** 그렇지요. 그건 항상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앞으

로 좀 더 나은 그런 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공무국외출장심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안에 대한 결과를 심사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선명, 김유성, 이정선, 김태현, 안재만(무순임)